

다니엘서 - 제43번

성경 예언에서 '멸망의 가증한 것'의 상징성 밝히기

Jeff Pippenger

2024-01-07

바울이 538년에 교황권의 부상을 억제하던 권세로 이교 로마를 지목한 사실은, 윌리엄 밀러가 인정한 증거가 되어, 다니엘서의 "the daily"가 이교주의를 가리킨다는 점을 확립했다. 윌리엄 밀러의 틀은 이교주의와 그 뒤를 잇는 교황주의라는 두 가지 황폐하게 하는 권세에 기반했다. 그 틀을 뒷받침해 준 밀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의 바울의 증언이었는데, 거기서 바울은 이교 로마가 가했던 교황권에 대한 억제가 제거되어, "죄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힌다.

다니엘서에서 이교를 나타내는 'the daily'라는 상징 다음에는, 그것이 '황폐하게 하는 죄악'이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든 늘 교황권을 가리키는 상징이 뒤따른다. 그러나 서기 66년부터 70년까지 3년 반 동안 일어난 예루살렘의 포위와 파괴에 관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경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즉시 도망해야 할 표징으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언급하셨다. 역사에 따르면 그 표징은 교황 로마의 상징이 아니라 이교 로마의 상징이었다. 포위와 파괴를 피하려면 신실한 이들이 그 표징을 알아보아야 했다. 그렇다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이교 로마의 상징인가, 교황 로마의 상징인가?

그러므로 너희가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황폐를 일으키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의 물건을 가지려고 내려오지 말라. 들에 있는 사람도 겹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 아이 밴 여자들과 젖먹이를 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다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에는 세상 시작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만약 그 날들이 줄여지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은 줄여질 것이다. 마태복음 24:15-22.

화이트 자매는 서기 66년부터 70년에 이르는 예루살렘 파괴의 역사 속에서 이 경고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논평하며, 로마 군대의 깃발, 곧 군기가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도피해야 할 징조였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은 이교 로마였는가, 아니면 밀러의 틀이 전제했던 바대로 교황 로마였는가?

윌리엄 밀러는 로마의 두 가지 양상(이교 로마와 그 뒤의 교황 로마)을 모두 이해하도록 이끌렸지만, 그가 살던 역사적 상황 때문에 두 왕국을 하나의 왕국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것들은 하나의 왕국이지만, 동시에 두 개의 연속된 왕국을 대표하기도 한다. 1798년의 예언적 역사에 의해 밀러는 로마를 주로 하나의 왕국으로 다루어야 했다. 1798년에 밀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대략 25년 후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1798년에 교황 로마가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밀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곧 돌아오실 것이었기 때문에, 교황 로마를 잇는 다른 지상의 왕국은 없었다.

밀러가 있던 역사적 맥락에서, 그는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이 네 개의 지상 왕국을 상징한다고 이해했는데, 이는 다니엘이 그렇게 증언했기 때문이다.

넷째 나라는 철같이 강하리라. 철이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수고 굴복시키는 것처럼,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철과 같이 산산이 부수고 상하게 하리라. 또 네가 본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고 얼마는 철이었으므로, 그 나라는 나뉘려니와, 네가 철이 질퍽한 진흙과 섞인 것을 보았은즉 그 가운데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라.
다니엘 2:40, 41.

밀러는 오직 네 나라만 있고 넷째이자 마지막 나라는 로마이며, 역사적으로 이교 로마 뒤를 교황 로마가 이었다고 알고 있었다. 밀러에게 넷째 나라는 다니엘의 말씀대로 '나뉘' 나라였지만, 그에게 그 분열은 로마라는 나라의 문자적 측면과 영적 측면 사이의 구별을 나타낼 뿐이었다. 그는 옳았지만 그의 이해는 제한적이었다.

밀러는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의 구분이 바울이 식별하라고 세움을 받은 그 구분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 바울(과 세레 요한)은 십자가의 때에 문자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런 이해가 없었던 밀러는 로마가 본질적으로 두 국면을 가진 하나의 왕국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는 옳았지만(한계가 있었다). 그는 영적 로마가 문자적 바벨론으로 대표된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영적 로마(교황권)는 또한 영적 바벨론이기 때문이다.

다니엘서 2장에서 네 왕국 중 첫째인 문자적 바벨론은 넷째 왕국을 예표하는데, 이는 처음 것이 항상 마지막 것을 예표하기 때문이다. 이교 로마는 바벨론으로 예표되었지만, 이교 로마와 바벨론 모두가 영적 로마(교황권)를 예표했다. 그러므로 교황권은 다섯째 왕국이었고, 바벨론으로 표상되었다. 이것이 화이트 자매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문자적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영적 바벨론에서 1,260년 동안의 영적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과 비교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오랜 기간의 가차 없는 박해 동안, 유배 기간에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로 포로 상태에 있었다." Prophets and Kings, 714.

그러므로 밀러는 이교 로마를 더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예언의 성취들을 교황 로마와 혼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에 대한 예들은 이어서 제시하겠지만, 밀러가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를 하나의 왕국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왜 그가 예수께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을 이교 로마의 성취로 언급하시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을 교황 로마의 상징으로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다. 밀러는 세 가지 황폐케 하는 세력을 보지 못했고, 이 때문에 그의 예언 해석의 틀은 정확하긴 했지만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교 로마가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로서 성전의 거룩한 구역에 군기를 세웠던 서기 66년의 역사적 성취에서 드러나는 그 불일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은 이교 로마를 상징하는가, 아니면 교황 로마를 상징하는가? 둘이 아니라 셋의 황폐하게 하는 세력을 인정하면 그 딜레마의 해답은 비교적 간단해진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리스도의 예언 성취에 관한 화잇 여사의 해설부터 시작해야 한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수반되어 있었다. 갈보리에서 흘린 피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그들을 멸망으로 가라앉힌 무게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큰 마지막 날에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그리스도께서 그때에는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 산처럼 나타나실 것이다. 의인에게는 생명인 그의 얼굴의 영광이 악인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될 것이다. 거절된 사랑과 멸시된 은혜로 인해 죄인은 멸망할 것이다.

수많은 비유와 거듭된 경고를 통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할 때 유대인들에게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될지를 보여 주셨다. 이 말씀들에서 그분은 모든 시대에 그분을 구속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경고는 그들을 위한 것이다. 더럽혀진 성전, 불순종하는 아들, 불의한 농부들, 경멸하는 건축자들은 모든 죄인의 경험 속에 그에 상응하는 것이 있다.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예고한 파멸이 그의 것이 될 것이다.

바울은 문자에서 영으로의 전환을 지적하며 그것이 십자가 사건의 시기에 일어났다고 밝히고, 예루살렘의 파괴가 십자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문자적 바벨론에 의해 처음 이루어진 문자적 예루살렘의 파괴는 문자적 로마에 의해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예수께서 언제나 시작과 함께 끝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바벨론의 이방 권세로 시작된 성소와 군대의 짓밟힘은 로마의 이방 권세로 끝났다.

영적 예루살렘에 대한 영적 짓밟음은 교황 로마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두 짓밟음의 시기(문자적과 영적)는 세 번째 황폐케 하는 권세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는 것을 예표한다. 로마의 용어로는 이를 현대 로마라고 부른다.

각각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 가지 황폐케 하는 세력이 있다. 이교의 용, 그 뒤를 잇는 가톨릭의 바다 짐승, 그리고 또 그 뒤를 잇는 미국의 땅 짐승(거짓 선지자)이다. 이교는 문자적 이스라엘을 짓밟은 여러 이교 세력들로 대표되었다. 그 후 교황주의는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영적 이스라엘을 짓밟았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은 현대 로마이며, 일요일 법 위기의 "hour"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세 황폐케 하는 세력은 또한 이교 로마, 교황 로마, 현대 로마로도 대표된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따르면 이교는 첫 네 왕이며, 다섯째 왕은 교황권이고,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왕은 현대 로마의 삼중 연합이다.

또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몰락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그가 오면 잠시 동안만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째이며 일곱에 속한 자로서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17:10, 11.

다니엘서 2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교는 문자적 바벨론에서 문자적 로마에 이르는 네 제국 전체를 가리킨다. 영적 바벨론은 교황권(금 머리)이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현대

로마)의 삼중 연합은 영적 메대-바사, 영적 그리스, 그리고 치명상이 치유된 영적 로마의 삼중 연합으로 상징된다.

예수께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을 언급하셨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 형태의 로마 각각에서 알아보아야 할 특정한 “징조”를 지적하신 것이었다. 이교 로마, 교황 로마, 현대 로마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다. 그 박해는 예언적으로 성소와 군대를 짓밟는 것으로 표현된다. 예수께서는 그 세 기간의 박해 각각에 대해, 그 박해가 다가옴을 알리는 경고를 주셨다. 로마의 권위의 “징조”가 성소 안에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에서 도망해야 할 때가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다니엘의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을 지상 권세의 상징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알아보아야 할 징조의 상징으로 사용하셨다.

예수께서는 귀 기울이는 제자들에게 배교한 이스라엘 위에 임할 심판들, 특히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한 응보의 심판이 그들에게 닥칠 것임을 선언하셨다. 분명한 표징들이 그 무서운 절정에 앞서 나타날 것이었다. 그 두려운 때는 갑작스럽고도 신속히 이를 것이었다. 그리고 구주께서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경고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마태복음 24:15, 16; 누가복음 21:20, 21. 로마의 우상숭배의 군기가 성벽 밖 몇 필롱까지 뻗어 있던 거룩한 지역에 세워질 때, 그리스의 추종자들은 도피함으로 안전을 찾아야 했다. 경고의 표징이 보일 때, 피하고자 하는 자들은 지체해서는 안 되었다. 예루살렘 자체는 물론 유대 온 땅에서 피신하라는 신호는 즉시 순종되어야 했다. 우연히 지붕 위에 있던 자는 가장 귀중한 보물을 구하려고 해서라도 집 안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었다. 밭이나 포도원에서 일하던 자들은 한낮의 더위에 수고하는 동안 벗어 두었던 겉옷을 가지러 되돌아갈 시간을 가져서는 안 되었다. 그들은 전반적인 멸망에 휘말리지 않도록 한순간도 머뭇거리서는 안 되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25.

그 본문에서 화이트 자매는 ‘멸망의 가증한 것’을, 그들이 성소의 ‘거룩한 곳’에 세워 둔 ‘로마인들의 우상 숭배적 군기’로 나타난 ‘분명한 표징’으로 규정한다. 예수께서는 ‘멸망의 가증한 것’을 이교 로마나 교황 로마 어느 쪽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표징’으로 사용하셨다. 그 ‘표징’이 성전의 거룩한 곳에 세워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전면적 파괴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 했다. 화이트 자매는 같은 본문에서 더 나아가, 그 멸망을 지목하신 그리스의 예언이 한 번 이상 성취되었다고 밝힌다.

예루살렘에 징벌이 임할 것에 관한 구주의 예언은 또 한 번 성취될 것이며, 그 끔찍한 황폐는 그 성취에 비하면 그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택하신 도성의 운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그의 율법을 짓밟은 세상의 파멸을 보게 된다. 최악으로 점철된 장구한 세기들 동안 이 땅이 목도해 온 인간 비참의 기록은 참으로 어둡다.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스꺼워지고 정신이 아득해진다. 하늘의 권위를 거부한 결과는 실로 끔찍하였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계시에는 더욱 어두운 광경이 제시된다. 과거의 기록, 곧 소요와 갈등과 혁명의 긴 행렬, ‘전사의 전투 ... 혼란한 소리와 피에 말린 의복’(이사야 9:5) — 하나님의 제지하시는 성령이 악인들에게서 완전히 거두어져 더 이상 인간의 걱정과 사탄의 진노의 폭발을 억누르지 않게 되는 그

날의 공포에 비하면, 이것들이 대체 무엇이겠는가! 그때 세상은 전례 없이 사탄의 통치가 낳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건짐을 받을 것이니, 살아 있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가 그러할 것이다. 이사야 4:3.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자기에게로 모으시기 위해 두 번째로 오시겠다고 선언하셨다: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할 것이며, 그들은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이다.' 마태복음 24:30, 31. 그때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의 입의 기운으로 소멸되고, 그의 오심의 광채로 멸망될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8. 옛 이스라엘처럼 악인들은 스스로를 멸망시킨다. 그들은 자기의 죄악으로 넘어지고 만다. 죄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의 조화에서 크게 벗어났고, 그들의 본성은 악으로 너무나 타락하여, 그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그들에게는 소멸시키는 불이 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담긴 교훈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삼가야 한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의 파괴를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며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멸망의 표징을 주신 것처럼, 그분은 또한 온 세상에 최후의 멸망의 날을 경고하시고 그 임박을 알리는 표징들을 주셔서, 원하기만 하는 모든 이가 다가올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선언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 징조들이 있으리라. 또 땅에서는 민족들의 혼란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21:25; 마태복음 24:29; 마가복음 13:24-26; 요한계시록 6:12-17. 그의 임하심의 이 전조들을 보는 자들은 '그 때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24:33.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 그분의 권면의 말씀이다. 마가복음 13:35. 이 경고에 유의하는 자들은 그 날이 뜻밖에 그들을 덮치지 않도록 어둠 가운데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깨어 있지 않으려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2-5. 대쟁투, 36, 37.

화이트 자매가 이 말을 썼을 때, 예루살렘의 파괴는 여전히 장차 성취될 일이 남아 있었다. 세상 끝에 현대 로마(용, 짐승, 거짓 선지자)를 상대로 집행되는 보응의 심판은 영적 바벨론의 최종적 몰락을 나타내지만, 영적 바벨론(교황권)은 이미 1798년에 한 차례 무너졌다. 예루살렘의 파괴는 배도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을 나타낸다.

기원후 66년부터 70년까지 삼 년 반 동안의 예루살렘의 파괴는 세상의 종말에 현대의 로마(용, 짐승, 거짓 선지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이 가져올 멸망을 예표한다. 기원후 66년부터 70년까지 이방 세력에 의해 이루어진 예루살렘의 포위와 파괴는 정확히 삼 년 반 지속되었다.

교황권에 의해 이루어진 영적 예루살렘의 포위와 파괴는 538년부터 1798년까지 예언적 3년 반 동안 지속되었다. 그 두 가지 예증은 현대 로마가 초래하는 일요일 법령 위기의 "한 시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포위와 파괴를 예표한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루살렘의 세 번의 파괴 중 마지막 것은 역전된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바벨론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승리로 끝난다. 세 차례의 전투마다 다가올 전쟁을 피해 도망가야 함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 주는 표징이 주어졌다. 서기 66년에는 이교 로마의 군대가 성소의 거룩한 땅에 그들의 군기(전투 깃발)를 세웠을 때였다. 538년에는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기독교 교회)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임을 보이며, 그해 오를레앙의 협의회에서 일요일 법을 통과시켰을 때였다. 일요일 준수 강제는 교황권이 자신들의 기독교 세계에 대한 권위의 증거로 여기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요일 예배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맞게) 주장하며, 기독교에서 예배일로 일요일을 제정한 사실은 그들의 이교적 전통과 관습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음을 증명한다.

서기 538년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교회와 분리해야 했는데,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터전에 교황 권위의 표지가 놓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화이트 자매는 그 역사에서의 분리 과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1,260년 동안 광야로 도피한 기간의 시작이 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빛의 군주와 어둠의 군주 사이에는 연합이 없으며, 그들의 추종자들 사이에도 연합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교에서 겨우 절반쯤만 개종한 자들과 연합하기로 동의했을 때, 그들은 진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길에 들어섰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수를 속이는 데 성공한 것을 크게 기뻐했다. 그는 이어 이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더욱 강하게 행사하여, 하나님께 충실하게 남아 있는 자들을 박해하도록 부추겼다. 한때 그 신앙의 수호자였던 자들만큼 참된 그리스도 신앙을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를 그렇게 잘 아는 이들은 없었다. 그리고 이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반쯤만 개종한 이교 출신 동료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교리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요소들을 향해 공격을 거론했다.

성직자의 예복으로 위장되어 교회에 도입된 기만과 가증한 것들에 맞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신실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사적인 투쟁이 필요했다. 성경은 신앙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종교의 자유라는 교리는 이단으로 불렸고, 그 옹호자들은 미움받고 금지와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

오랜 치열한 투쟁 끝에, 신실한 소수는 배교한 교회가 여전히 거짓과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한다면 그 교회와의 모든 연합을 끊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달았다. 자신들의 영혼에 치명적인 오류를 감히 용납하지 않았고, 자녀와 손주들의 믿음을 위태롭게 할 본을 보일 엄두도 내지 않았다. 평화와 일치를 확보하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양립할 수 있는 한 어떤 양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원칙을 희생하는 대가로 얻는 평화라면 너무 값비싼 것이라고 여겼다. 만일 진리와 의를 타협해야만 일치를 이룰 수 있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불일치가, 심지어 전쟁이 있더라도 좋다. 위대한 논쟁, 45.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러한 생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영원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막이 곧 올라가려 한다. 이 엄숙하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가, 주위에서 영혼들이 멸망해 가는데도 자기 안일을 사랑하는 이기심에 매달려 있으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감각해진 것인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는가?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부류에 속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이 헛되었는가? 그분이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경고를 보내신 것이 헛되었는가? 곧

이 땅에 임할 일들에 관한 영원한 진리의 선언을 믿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 위에 임박해 있음을 믿는가? 그런데도 여전히 안일하고, 나태하고, 무심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마음을 붙이거나 재물을 쌓아 둘 때가 아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초대 제자들처럼 우리도 황량하고 외딴 곳에서 피난처를 찾아야만 하는 때가 올 것이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일이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피하라는 신호였던 것처럼, 우리 나라가 교황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칙령으로 권세를 행사하는 일은 우리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큰 도시들을 떠나야 하며, 이어 산중의 외딴 곳에 있는 은거할 집을 찾아 작은 도시들까지 떠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값비싼 거처를 구하기보다는 더 나은 나라, 곧 하늘의 나라로 옮길 준비를 해야 한다. 자기 만족을 위해 우리의 재정을 쓰기보다, 우리는 절약에 힘써야 한다. 하나님이 맡겨 주신 모든 재능은 세상에 경고를 전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동역자들이 도시들에서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의 선교 사역은 유지되어야 하며, 새로운 선교가 열려야 한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적지 않은 지출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이 때를 위한 진리를 듣도록 초대할 수 있는 예배당이 필요하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청지기들에게 자금을 맡기셨다. 이 일이 지체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재산이 세속적 사업에 묶여 버리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직접 다룰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의 재정을 두라. 여러분의 보화를 미리 하늘에 보내라. 증언 제5권, 464쪽.